

부실투성이 한빛원전...가동중단·CLP 결함 최다

(방사능 유출 방지용 내부철판)

제가동 승인 후 3개월 내 30회 멈춰서

1호기 CLP 부식 2380곳 가장 많아

점검·보수비용 수백억원 혈세 낭비

격납건물 공극과 철판 부식, 열출력 급증사고 등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부실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한빛원전은 부실 시공 등에 따른 점검과 보수비용으로 수백 억원의 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제출받은 '가동원전 제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빛원전은 제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30번이나 멈춰선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정기적인 원전 안전성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가동 승인을 하고 있다. 전국적인 멈춤 사고는 고리 2호기 26건, 한빛 2호기 17건, 월성 1호기 15건, 고리 3호기 14건, 한빛 1호기 13건, 고리 4호기·한울 1호기·한울 2호기 각 9건 등 21개 원전에서 148건이 발생했다. 정지가 발생한 때까지 시간도 평균 29일도 한 달에도 못 미쳤다.

특히 지난 5월 9일 제가동 승인을 받은 뒤 다음날 수동 조작에 의한 열출력 급증사고로 정지한 한빛 1호기처럼 제가동 승인 하루 만에 정지된 경우도 6건이나 됐다. 제가동 승인 후 10일 내 정지한 경우는 55건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원안위가 원전 안전 신화에 사로잡혀 제가동 승인을 부실하게 내려 사고가 반복하

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건물 안전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송래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공개한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원전 13기 격납건물 내 방사능 유출 방지용 내부철판(CLP) 결함 부위가 9998곳(올해 7월 21일 기준)이나 발견됐다. 이 중 한빛원전 1호기가 2380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리 4호기 2158곳, 고리 3호기 2077곳, 한빛 2호기 1643곳 등의 순이었다.

국내 원전 19기 격납건물에는 탄소강 소재 CLP가 설치돼 있는데, CLP는 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두께 168cm)과 함께 폭발 등 사고가 일어났을 때 1차 방호 역할을 한다. 설치 당시 CLP 두께는 6mm로, 부식 등으로 인해 5.4mm 미만으로 측정되면 교체나 보강 등 보수작업을 해야 한다.

원안위는 2016년 6월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CLP 부식을 확인했고, 이후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CLP 결함 원인으로는 수분과 염분 유입에 의한 부식과 설비 당시 과도한 그라인딩 등에 의한 변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격납건물 공극이나 CLP 결함 등에 따른

보수·점검 비용으로만 수백억원의 혈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극 245개와 CLP 결함 120곳이 발견된 한빛 3·4호기의 점검·보수 비용으로 모두 586억원으로 책정됐다. 우리나라 원전 전체적으로는 1655억원이다. 김종훈 의원은 "원전 부실시공으로 인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지만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대인예술아시장 북적이는 인파

5일 개장한 광주시 동구 대인예술아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대인아시장은 10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열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국공립대 연구비 부정사용 여전...4년간 8억여원 환수

광주·전남 일부 국·공립 대학들이 최근 4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액수가 8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연구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95건으로 확인됐다. 환수 대상 연구비는 44억6400만원에 달했다.

95건의 부정 행위 중 11건은 광주·전남지역 국·공

립대학에서 발생했으며, 환수 대상 연구비는 8억 6085만원이었다.

목포대는 총 6건이 적발돼 환수 대상 연구비가 8억3264만원에 달했고, 순천대 4건 1441만원, 광주과학기술원 1건 1380만원 등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과 횡령이 발생한 것은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주무부처와 연구재단은 연구비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경찰 조사 중 메모권 보장하는 '자기번호 노트' 전국 확대 시행

경찰청은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자기번호 노트' 제도가 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서울의 경찰서 5곳에 이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해왔다. 자기번호 노트는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트에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3개월간 1차 시범 운영 결과 긍정적 반응이 나오자 2차로 서울 31개 경찰서로 제도를 확대했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진술 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할 수 있도록 제공하던 '메모장' 교부제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전국 경찰서에서 본격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번호 노트와 메모장이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오는 불안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수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인권과 기본권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라남도선정
대표유망축제

고대 마한의 중심 나주!

2019 대한민국 마한 문화제

KOREA MAHAN CULTURAL FESTIVAL 2019

2019. 10. 11. (금) ~ 10. 13. (일)

국립나주박물관 일원

주최 나주시 나주마한문화축제추진위원회
주최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주최 국립나주박물관
주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1	달뜨기	14:49
해질	18:09	달지기	00:08

우산 챙기세요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가 오전에 전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광주	비	16/19	보성	비	15/19
목포	비	17/20	순천	비	16/19
여수	비	17/19	영광	비	15/19
나주	비	15/19	진도	비	17/20
완도	비	18/21	전주	비	16/18
구례	비	15/19	군산	비	15/17
강진	비	16/20	남원	비	15/18
해남	비	17/20	흑산도	비	17/20
장성	비	15/1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북서~북	0.5~1.0
남부	앞바다	동~남동	1.0~2.0	북서~북	1.0~2.0
	앞바다	동~남동	0.5~1.0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동~남동	1.0~2.0	서~북서	0.5~2.0
	앞바다(서)	동~남동	1.0~2.0	서~북서	1.0~2.0

◇물때

		간조		만조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목포		02:27	08:23		
		14:08	21:38		
여수		09:47	03:52		
		--:--	17:41		

◇주간 날씨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	☀	☀	☀	☁	☁	☁
14/22	9/22	11/23	13/25	14/25	15/21	11/20

◇생활지수

- ☔ 관심
- ☀ 보통
- ☀ 좋음